

잊을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5박6일 참 짭네요”

크루즈를 타다

<下> 크루즈의 사람들

크루즈는 배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 이동이 여행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 여행에선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재미다. 교통, 숙박, 경로 등 굵직한 것들마저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써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뿐이다. 바로 ‘즐거는 것’.

5박 6일의 마지막 밤, 선내 곳곳을 돌며 만난 이들에게 롯데제이티브 전 세션 ‘코스타네오로맨티카호’의 특별한 함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봤다.

◆여기는 7080, 선상의 콘서트

기자가 만난 승객 중 절반 이상이 ‘가장 좋았다’고 꼽은 프로그램은 바로 선상 콘서트다. 건아들의 과종목, 김범용, 배우 이정용, 각설이 왕발이 등 중장년층 승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할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예상치 못한 장면도 연출됐다. 신인 가수 차수빈의 팬클럽 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응원에 나선 것.

콘서트장에서 만난 제시카 서 씨는 “차수빈의 서울지부 팬클럽 회장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팬클럽 회원들이



차수빈의 공연을 위해 팬클럽 회원들이 응원에 나섰다. 차수빈 공연 현장.

김범용·이정용 등 7080 연예인 선상 콘서트 9층 카페앞에선 매일 밤 9~10시 클래식 공연도 마지막 정찬 레스토랑은 ‘크루즈의 대미’ 장식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고 소개한 그는 이번 크루즈 상품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로 ‘기획력’을 꼽았다. 서 씨는 “테마를 가진 크루즈 여행은 많지만, 이렇게 연예인을 데리고 오거나 선상에서 권투 시합을 보여주는 것은 보기 힘들다”면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기획력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네”

매일 밤 9시~10시경에 열리던 9층

카페 앞 클래식 공연을 ‘최고’로 꼽은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밤, 카페 앞에서 만난 한 남성 승객은 “돈 주고 보는 공연만큼 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승객은 “부채춤이 참 멋있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층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선 신명나는 콘서트, 한쪽에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 것이다.

부채춤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자 무용단.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한국



마지막 날 정찬 레스토랑 현장.

/김민서 기자

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자 교수를 포함한 8명이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김영자 교수는 “크루즈에서의 공연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며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크루즈

김영자 교수는 “크루즈에서의 공연도, 크루즈 여행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5박 6일이 참 짧다. 크루즈는 돈 내고 와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와보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저 역시 나이가 좀 더 들면 크루즈 여행을 또 한 번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

크루즈에서 만난 또 다른 승객들 역

시 열에 여덟은 “크루즈를 다시 타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 여성 승객은 “정찬도 좋았고, 뷔페도 만족스러웠다”며 “일어나서 여행하고 치러준 밥 먹고 기다리면 공연까지 해주니 아들 내외 덕 쯤 봤다”며 웃음을 보였다.

마지막 정찬 레스토랑에서 승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던 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은 이도 있었다. 그는 “머리 위로 흰 천을 흔들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다.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휴먼터치’다”라던 박재영 롯데제이티브 대표이사의 말이 틀리지 않은 듯 하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부산 국제시장 둘러보는 향기니(가운데)와 나타샤(오른쪽).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인도 최대 화장품업체 ‘와르다’

“한국 관광 떠나요” 웹드라마 제작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는 한류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화장품업체인 와르다(Wardah)와 웹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웹드라마에는 인도네시아의 유명인 플루언서 향기니와 나타샤가 출연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일까지 서울, 부산, 강원도의 여행지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 중이다.

웹드라마와 별도로 와르다의 TV 화장품 광고, 뮤직비디오, 브랜드 포토 이미지, 촬영 후기 등에도 한국 여행지가

배경으로 쓰인다. 한국관광홍보대사인 그룹 엑소(EXO)의 한국관광 홍보 영상물 촬영지 등 인도네시아 한류 팬 및 관광객의 방한심리를 자극할 여행지가 다양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우병희 한국관광공사 브랜드광고팀장은 “이번 웹드라마를 매개로 할랄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업체 1위인 현지 업체와 협업해 K-팝 연계 한류 및 무슬림 프렌들리 방한 환경을 홍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콘텐츠는 5월 중 인도네시아 SNS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롯데주류 ‘클라우드’ 5주년 기념 미니콘서트

롯데주류가 ‘클라우드’ 출시 5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 서울 송파구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에서 록밴드 ‘국카스텐’과 함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클라우드’ 출시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미니 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와 국내의 대표적인 실력과 록그룹 ‘국카스텐’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소비자들이 맥주의 풍미와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주실력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당일 입장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콘서트 시작인 6시부터 보컬 하현우를 비롯한 ‘국카스텐’의 멤버들이 약



한 시간여 동안 라이브 무대를 선 보일 예정이다. 공연 종료 후에는 ‘국카스텐’의 싸인이 담긴 ‘클라우드 메이커’를 추첨 등을 통해 한정 수량 증정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돈물 ‘가정의 달’ 맞이 할인 기획전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물을 통해 ‘선물할 맛 나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삼겹살, 목심, 항정살, 등심덧살,

앞다리살 등 다양한 부위로 구성된 선물 세트 상품을 4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간 한돈물 상품 구매 고객 중 매주 1명을 선정해 ‘통돌이 오븐’을 증정하는 가정의 달 기념 ‘사랑 한가득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 지역대학생 ‘오픈캠퍼스’로

올해 2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서 ‘오픈 캠퍼스’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오픈 캠퍼스 운영 공공기관 수를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 10곳이 조성돼 있다.

오픈 캠퍼스는 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현장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오픈 캠퍼스 참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법률·주택건설 관련 실무교육,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한국전력거래소의 빛가람학점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융복합관광분야 과정 등이 대표적 오픈 캠퍼스 사례로 꼽힌다. /연합뉴스